

귀 가 -문학-



[객용 학습 03]

연필

경쟁 살면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교육부문 1위 채널

- [고 3] <https://contents.premium.naver.com/jk9221/jk006445>
- [고 1~2] <https://contents.premium.naver.com/kl123/jk1234>
- [중 1~3] <https://contents.premium.naver.com/kl123/jk1234>

(가) 연륜

I 김기림

핵심 정리

작품 개관

서른을 넘긴 삶을 성찰하며 과거를 끊고 불꽃처럼 새롭게 살고자 다짐하는 시

화자는 육지로 표상되는 과거와 결별하고 열렬한 삶을 살기 위해 '섬'이라는 이상적 공간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나온 삶을 성찰하며 앞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서른 남은 해'가 '무너지는 꽃이파리'처럼 덧없음을 느끼며,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게 연륜만 쌓이는 초라한 삶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 삶에서 과감하게 결별하고 '섬'이라는 이상적 공간으로 향하려는 것이 화자의 태도 변화이다.

작품 개관

- **갈래:** 자유시
- **성격:** 의지적 · 성찰적 · 미래 지향적
- **주제:** 지난 삶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을 향한 열정적 다짐
- **특징**
 1. '무너지는 꽃', '불꽃' 등의 이미지로 삶의 쇠퇴와 재생 의지를 대비함.
 2. 나이와 연륜을 소재로 삼아 인생의 전환점을 형상화함.
 3. 자연 이미지를 활용하여 내면의 결심과 정서를 상징적으로 드러냄.
 4. 과거를 끊고 새롭게 나아가려는 의지적 어조가 종결부에서 강화됨.

(가)

무너지는 꽃이파리처럼
자신의 삶에 대한 비유적 표현(직유법)

휘날려 발아래 깔리는
하강적 이미지

서른 남은 해야.
화자의 지나온 삶을 의미함.

떨어져 발밑에 밟히는 꽃잎들을 보며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탄식을 보임. '꽃이파리'는 젊음의 시각화, 떨어지는 하강적 이미지

▶ 1연: 지나온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직유법을 통한 자신의 꿈을 담은 삶 현실의 삶에 경직되어감.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
세월이 흐르면서 삶의 경험과 시간이 나이테처럼 쌓여가는 연륜

젊은 시절의 꿈의 경직으로 현실과 타협한 흔적이 나를 옥아매고 있음. '뜻'은 이상과 포부, '굳어, 감기는' 등은 현실에 부딪혀 경직되는 모습을 의미함.

▶ 2연: 뜻을 펴지 못한 채 쌓여가는 연륜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직유법의 사용

산호 편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화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적 공간인 '섬'으로 가자는 '청유형' 어미 사용(의지)

자유로운 갈매기처럼 산호가 피어있는 섬으로 떠나고 싶은 동경과 현실과의 단절을 시도하는 모습

▶ 3연: 이상적 공간으로 하려는 의지

비췌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이상적 공간에서 발견하는 대상에 대한 형상화 (기대와 희망)

무너지지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이상적 공간의 아름다운 자연물 (의지적 태도)

이상적 공간에 대한 상상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 색채어를 통한 순수와 청결, 1연과의 대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려 함.

▶ 4연: 이상적 공간의 아름다운 모습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과거의 삶에 대한 화자 인식 '육지'는 과거 삶이 있는 곳(단절 의지)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 버리고
과거 삶에 대한 단절 의지가 단호함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섬'에서 이루어지는 미래의 삶은 열렬히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

보잘것 없었던 과거를 단절하고 답답한 나이테(연륜)도 끊고 뜨겁고 치열하게 다시 살겠다는 삶에 대한 다짐을 하고 있음. '연륜'은 정적인 이미지, '불꽃'은 역동적 이미지가 드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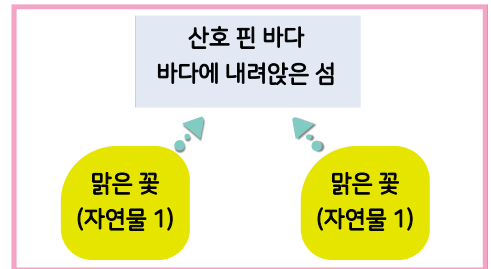
▶ 5연: 과거와의 단절과 미래 삶의 의지

표현상의 특징

- 자연물을 활용한 상징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내면 변화와 삶의 태도를 드러냄.
- '무너지는 꽃', '불꽃' 등 대비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쇠퇴와 재생의 의미를 강조함.
- 비유와 심상 중심의 표현으로 추상적인 삶의 성찰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함.
- 의지적 어조의 반복과 점층적 전개를 통해 새로운 삶을 향한 결심을 강화함.

- 비유: 꽃이파리, 구름, 갈매기, 불꽃 처럼
- 감각적 이미지: 비췌빛 하늘, 맑기도 하리라,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 의지적 어조: 섬으로 가자, 열심히 살리라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



(나) 정릉 살면서

I 박재삼

핵심 정리

작품 개관

자연 속에서 삶을 돌아보며 상처를 치유받고 존재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시.

화자는 솔잎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과 햇빛, 실개천의 흐름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자연은 그에게 그동안 허술했던 삶을 바로 세우라고 일러 주고, 상처 입은 내면을 말갱게 씻어 준다. '뇌혈관', '간장'과 같은 신체 기관의 이미지로 치유의 과정을 구체화한다. 그 속에서 화자는 눈물나게 넘치는 삶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소중한 '자산'으로 간직하고자 다짐한다.

작품 개관

- 갈래: 자유시
- 성격: 성찰적 · 치유적 · 관조적
- 주제: 자연 속에서 삶을 돌아보며 얻는 위안과 존재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
- 특징
 1. 바람, 햇빛, 실개천 등 자연물이 화자의 내면을 치유하는 존재로 형상화됨.
 2. 신체 기관(뇌혈관, 간장)을 활용하여 정신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표현함.
 3.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 과정이 드러남.
 4. 일상 속에서 발견한 삶의 가치와 내면의 풍요를 '자산'이라는 비유로 제시함.

(나)

솔잎 사이사이

바람이 화자에게 오는 공간

아주 빗질이 잘된 **바람**이

바람의 순수와 정갈함을 강조(바람의 촉각을 시각화하고 있음)

내 뇌혈관에 새로 **달아 와서는**

바람이 오는 모습(공감각): 고향으로 쓰러졌던 화자의 신체

그동안 **허술했던**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목숨의 **운명을 잘해 보라 일러 주고 있고...**

삶의 운영의 실수(성찰) 바람이 '화자'에게 충고와 위로(반성과 재정부)

고혈압으로 쓰러졌던 시인이 자신의 삶에서 바람의 치유를 몸의 회복으로 노래하고 있음. '솔잎(시각)'을 '바람(촉각)'으로 전이시킨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바람의 순수함과 정갈함을 강조함.

▶ 1연: 목숨의 운영을 잘해 보라는 바람

살 끝에는 **운동**

촉각적으로 느끼고 있음.

금싸라기 **햇빛**이

햇빛을 '금싸라기'란 시각으로 형상화

내 잘못 살아온 **서른여섯 해**를

자신의 과거 삶의 시간들을 의미

덜어서 **쓰다듬어 주고 있고...**

햇빛(자연)의 속성: 포용과 위로와 따스함을 지님.

'햇빛'의 시각적 심상을 통해 자연의 포용성과 위로가 담겨 있으며 화자는 과거의 삶에 대한 반성으로 자신의 삶의 실수나 후회도 자연과 세월 속에서 치유되고 감싸줄 수 있다는 희망적 시각을 보임.

▶ 2연: 잘못 살아온 삶을 쓰다듬는 햇빛

그뿐인가,

시름으로 고인

내 **간장(肝臟) 안 웅덩이를**

'간'의 속성: 스트레스와 관련 → 삶의 비애가 담긴 내면을 의미.

세월의 동생 **실개천**이

의인화를 활용하여 자연이 더 지혜로움을 드러냄.

말갱게 **씻어 주며 흐르고 있고...**

실개천이 화자의 내면을 정화하며 치유해 주고 있음.

'간장'은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삶의 비애와 함'의 내면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를 실개천이란 의인화된 대상이 맑게 정화해주고 있음을 드러냄.(물의 정화작용으로 내면이 치유되고 있음.)

▶ 3연: 간장 안 웅덩이를 씻어 주는 실개천

친구여,

가상의 대상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들은 돈이 안 되는 자연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음.

이 눈물나게 넘치는 **자산(資産)**을

화자는 자신의 자산이 곧 바람, 햇빛, 물소리와 같은 자연이라 생각(안분지족)

혼자 **아껴서 곱게 가지리로다.**

의지적 태도: 바람 → 햇빛 → 실개천에서 안분지족과 몰아일체적 삶을 지향)

가상의 대상인 '친구'에게 '자연'이아말로 화자의 목숨을 살리는 진짜 보물임을 드러내며 안분지족의 삶과 몰아일체적 삶을 지향하고 있음(의지의 반영)

▶ 4연: 소중한 자연과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

표현상의 특징

- 동일한 종결 표현 반복

「일러 주고 있고...」, 「쓰다듬어 주고 있고...」
→ 유사한 문장 구조와 종결 표현을 반복하여 안정된 호흡과 정서의 지속을 형성함.
- 감각적 이미지

「금싸라기 햇빛이」, 「말갱게 씻어 주며 흐르고 있고」
→ 시각·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의 따뜻함과 치유의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함.
- 의인법

「바람이 ... 목숨의 운영을 잘해 보라 일러 주고 있고」, 「실개천이 말갱게 씻어 주며 흐르고 있고」
→ 자연물을 인간처럼 행동하는 존재로 표현하여 화자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대상으로 형상화함.
- 의지적 어조

「혼자 아껴서 곱게 가지리로다」
→ 삶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다짐을 통해 시를 마무리함.
- 신체 기관을 활용한 구체적 형상화

「내 간장(肝臟) 안 웅덩이를」, 「내 뇌혈관에 새로 달아 와서는」
→ 추상적인 삶의 반성과 성찰을 '뇌혈관', '간장(肝臟)' 등 신체 기관으로 구체화함.





05 [보기]를 참고하여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김기림의 「연륜」과 박재삼의 「정릉」에서는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두 작품의 화자는 이러한 자기 인식과 정서를 드러내기 위하여 자연물과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상징적 시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태도와 세계를 드러내는 방식에서는 상이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는 자연물을 통해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자연의 작용을 통해 과거 삶에 대한 반성을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자연을 객관적 배경으로만 활용하여 정서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 ④ (나)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삶을 성찰하는 과정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06 [보기]를 참고하여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서정시는 화자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정서의 방향과 의미가 달라진다. 동일한 자연 대상이라 하더라도 화자의 인식 태도에 따라 위로와 치유의 매개가 되기도 하고, 상실과 거리감을 드러내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 ① (가)는 자연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② (나)는 자연을 삶의 치유와 회복의 계기로 인식하고 있다.
- ③ (가)는 자연과의 거리감을 강조하여 화자의 고립된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자연을 통해 삶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자연 인식 방식에 따라 정서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준다.

07 내재적 관점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자연물에 화자의 삶의 경험을 접목시켜 대상이 정서를 형성하는 매개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자연의 작용이 화자의 내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제시되면서 정서의 변화가 작품 내부의 표현 구조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 ② (가)는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현실 속에서 형성된 자연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나)는 작가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자연 이미지에 투영되어 형성된 정서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가)는 당대 사회의 가치관과 자연관이 반영된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시대적 인식을 바탕으로 감상할 수 있다.
- ④ (가)는 작가의 개인적 생애와 체험을 통해 형성된 정서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나)는 작품이 생산된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의미가 보다 분명해진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독자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해석될 때 작품의 의미가 확장될 수 있다.

08 (가)와 (나)를 감상하고 나는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희주**: (가)에서 '발아래 깔리는'은 자연의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계기로 기능하는 것 같아. 자연의 위치가 곧 화자의 인식 태도를 드러내는 장치처럼 느껴졌어.
- ② **민석**: (나)에서 바람과 햇빛, 실개천이 화자의 신체 내부에 작용하는 것으로 표현된 점이 인상적이었어. 자연의 작용이 곧 화자의 내면 정화 과정으로 형상화되고 있다고 생각해.
- ③ **지현**: (가)는 자연을 단순한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화자의 정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자연 묘사는 분위기 조성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느꼈어.
- ④ **도윤**: (나)에서 '잘해 보라 일러 주고 있고'라는 표현은 자연을 의인화함으로써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발하는 장면처럼 보여. 자연이 일종의 조연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 ⑤ **서연**: (가)와 (나) 모두 자연을 통해 화자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는 자연 속에서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비해 (나)는 이미 지난 삶을 보듬는 데 더 초점이 있는 것 같아.

09 [보기]는 (가)와 (나)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가)는 자연물에 화자의 인식을 결합하여 자연이 정서를 드러내는 매개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
- ㄴ.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점차 고조되는 구조를 통해 갈등의 해결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ㄷ. (나)는 자연의 작용이 화자의 신체 내부로 스며드는 방식으로 형상화되어 내면의 정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ㄹ. (나)는 동일한 종결 표현의 반복을 통해 정서의 단절과 긴장을 강조하고 있다.
- ㅁ. (가)와 (나)는 모두 자연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ㄷ, ㄹ
- ④ ㄱ, ㄷ, ㅁ
- ⑤ ㄴ, ㄷ, ㅁ





10 (가)~(나)에 사용된 시어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시적 의미와 기능이 유사한 것은?

보기

아름에 하늘이 무너졌다.
 깨진 하늘이 아물 때에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푸른 빛은 장마에
 넘쳐 흐르는 흐린 강물 위에 떠서 황야(荒野)에 갔다.//
 나는 무너지는 독에 혼자 섰다.
 기슭에는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생(生)의 감각(感覺)을 흔들어 주었다.

-김광섭, '생의 감각'

- ① (가)의 '꽃이파리'
- ② (가)의 '서른 남은 해'
- ③ (가)의 '주름 잡히는 연륜'
- ④ (나)의 '간장 안 웅덩이'
- ⑤ (나)의 '실개천'

11 [보기]의 시적 발상과 표현 의도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적 발상이란 외부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내면 인식과 정서를 외부 대상에 투사하여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때 자연물이나 감각적 이미지는 객관적 대상이 아니라 화자의 인식 변화와 정서적 지향을 드러내는 매개가 되며, 시적 표현은 감각의 전이, 대상의 상징화, 이미지 간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의미를 심화한다.

- ① (나)에서는 고혈압으로 쓰러졌던 시인이 생에 대한 성찰과 의지를 자연물을 통한 치유 과정으로 통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나)에서는 '바람'이라는 촉각적 대상을 시각화하는 감각의 전이를 통해 '바람'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가)에서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삶에 대한 인식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며, 자연은 정서를 매개하는 표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나)에서는 바람·햇빛·실개천의 작용이 화자의 신체 내부로 스며드는 방식으로 형상화되어, 자연이 내면 변화의 동인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자연을 인간과 분리된 객관적 실체로 제시하여, 자연 자체의 질서를 탐구하는 데 표현의 중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하강적 속성을 지녔던 삶이 갈매기의 유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상승적 속성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② 자신이 경험했던 바다의 속성을 통해 이상적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이상적 공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상상과 의지의 시적화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④ 과거의 삶을 '초라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단절의 의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불꽃이라는 상승적 속성을 지닌 소재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학은 인간의 삶과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기능을 지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문학이 인간의 감정을 정화하고 삶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보았으며, 현대의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 역시 문학이 타인의 삶을 상상하게 하여 윤리적 성찰과 공감 능력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문학의 효용적 가치는 독자로 하여금 삶을 성찰하게 하고,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거나 미래의 삶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데 있다.

- ① (가)는 화자가 경험하지 못한 이상적 공간을 지향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현실을 넘어선 삶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효용적 가치를 지닌다.
- ② (나)는 화자가 직접 체험한 자연 속에서 생의 감각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일상적 삶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효용적 가치를 지닌다.
- ③ (가)는 현실에서 실제로 경험한 공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독자가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도록 만드는 효용적 가치를 지닌다.
- ④ (나)는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보여 주어 독자가 자신의 삶의 태도를 성찰하도록 하는 효용적 가치를 지닌다.
- ⑤ (가)와 (나)는 각각 상상적 지향과 경험적 성찰이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독자의 인식 범위를 확장하게 하는 효용적 가치를 지닌다.

[서술형]

14 (나)에서 '시름으로 고인 내 간장(肝臟) 안 웅덩이'가 의미하는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15 [보기]를 참고하여 (나)의 화자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로만 묶인 것을 고르면?

보기

신체적 고통을 겪었던 시인은 자연 속에서 감정의 정화와 삶에 대한 긍정적 수용의 태도를 유지하게 된다. 이는 자연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자연을 좀 더 지혜롭고 너그러운 존재로 인식하려는 작가의 자연관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안분지족(安分知足), 물아일체(物我一體)
- ② 견문발검(見蚊拔劍), 풍월주인(風月主人)
- ③ 자연순응(自然順應), 망운지정(望雲之情)
- ④ 견문발검(見蚊拔劍), 반포지효(反哺之孝)
- ⑤ 진충보국(盡忠報國), 경이원지(敬而遠之)

16 (나)의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 변화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성 → 위로 → 정화 → 의지
- ② 후회 → 반성 → 정화 → 의지
- ③ 공감 → 반성 → 정화 → 의지
- ④ 정화 → 반성 → 후회 → 의지
- ⑤ 의지 → 정화 → 반성 → 의지

17 (가)와 (나)의 공간 형상화 방식에 대한 접근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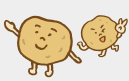
- ① (가)의 공간은 현실에서 직접 경험된 장소라기보다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을 상상적으로 구성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 ② (나)의 공간은 화자가 실제로 체험한 자연 속에서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보여 주며 정서 변화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 ③ (가)의 공간은 현실과 단절된 완결된 이상 세계로 제시되므로 화자의 현재 삶의 긴장이 해소된 상태를 보여 준다.
- ④ (나)의 자연은 화자의 내면 상태와 상호 작용하며 정서의 정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자연을 매개로 삶의 태도를 재구성하지만, (가)는 지향의 방식으로, (나)는 체험의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8 작품에 대한 감상 접근 방식을 활용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밭아래 깔리는'이라는 하강적 이미지는 시인이 방황하던 삶의 경험과 내면의 불안을 반영한 표현이다.
- ② (가)에서 '서른 남은 해'라는 시간적 이미지는 시인이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태도를 담아낸 표현이다.
- ③ (나)에서 '간장 안 웅덩이'라는 은유적 표현은 시인이 경험한 신체적 고통과 쌓인 근심을 내면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 ④ (나)에서 '실개천이 말갈게 씻어 주며 흐르고 있고'라는 표현은 시인의 자연 체험과 그로 인한 정서적 치유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 ⑤ (가)에서 '금싸라기 햇빛'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는 시인이 자연을 관조하면서 느낀 기쁨과 안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삶의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장치이다.



정답 및 해설



01

[정답] ①
(해설)

- ① (가)는 자연 이미지를 중심으로 장면을 제시하며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나)는 바람·햇빛·실개천 등의 자연물을 통해 삶을 반성하고 긍정적으로 재인식하는 내면 성찰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② (나)는 동일 정서의 반복이 아니라 자연의 작용을 통해 점차 정서가 정화되는 과정이 나타나므로 부적절한 설명이다.
 - ③ (나) 역시 자연에 인격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관조의 대상으로만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나)는 현재 삶에 대한 비판보다는 치유와 수용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부적절하다.
 - ⑤ 두 작품 모두 공간 이동 중심의 시상 전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 ② 정서 반복과 점층적 변화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 ③ 의인화의 유무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 ⑤ 시상 전개의 기준이 공간인지 인식 변화인지 구분해야 한다.

02

[정답] ①
(해설)

- ① (가)는 자연 묘사를 통해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며, (나)는 '잘해 보라 일러 주고 있고', '곱게 가지리로다'와 같은 직접적 진술을 통해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므로 적절하다.
 - ② (가)는 명령형 중심의 시가 아니며, (나) 또한 객관적 거리 유지보다 내면 고백적 성격이 강하므로 부적절하다.
 - ③ (나)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므로 부적절하다.
 - ④ (나)는 인간 중심 세계관을 비판하기보다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자아를 회복하는 태도를 보이므로 부적절하다.
 - ⑤ 두 작품 모두 종결 표현 반복이 중심적 특징이라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피하기]
- ② 화자의 태도와 문장 종결 방식의 기능을 구분해야 한다.
 - ③ 미래 지향성과 삶의 수용 태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03

[정답] ②
(해설)

- ② 자연의 감각적 이미지가 화자의 신체 내부로 스며드는 방식으로 제시되며, 이는 삶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서의 정화를 드러내는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 ① 자연 이미지는 무력감이 아니라 회복과 생명력의 의미로 기능하므로 부적절하다.
 - ③ 작품은 단절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흐름을 보이므로 부적절하다.
 - ④ 현실 비판보다는 내면 성찰의 맥락에서 사용된 표현이므로 부적절하다.
 - ⑤ 과거 회상은 부정적 심화가 아니라 현재의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되는 계기로 기능하므로 부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 ③ '단절'과 '정화'의 의미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 ⑤ 과거 회상이 항상 부정 정서를 강화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04

[정답] 심
(해설)

- (가)에서 '심'은 현실과 구별되는 상상적 자연 공간으로 제시되며,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와 세계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과거의 삶을 반성한 이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 지향적 삶의 공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자연물 일반을 쓰기보다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핵심 공간 소재를 찾아야 한다

05

[정답] ③
(해설)

- ③ 두 작품 모두 자연을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화자의 정서와 인식을 드러내는 매개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부적절한 감상이다.
 - ① (가)는 자연 이미지를 통해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나)는 자연의 작용을 통해 과거 삶을 긍정적으로 재인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나)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태도로 적절하다.
 - ⑤ 두 작품 모두 삶의 성찰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 ③ 자연의 기능이 배경인지 의미 생성 장치인지 구분해야 한다.

06

[정답] ③
(해설)

- ③ (가)는 자연과의 거리감을 강조하기보다 자연을 매개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고립감 중심의 감상은 부적절하다.
- ① 자연 이미지를 통한 간접적 정서 형상화가 나타나므로 적절하다.
- ② (나)는 자연을 통해 삶을 치유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므로 적절하다.
- ⑤ 두 작품 모두 자연 인식 방식에 따라 정서 의미가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 주므로 적절하다.

07

[정답] ①
(해설)

- ① (가)는 자연물과 화자의 경험이 결합되는 표현 방식, (나)는 자연의 작용이 화자의 내면 변화로 이어지는 시상 전개 구조를 중심으로 작품 내부에서 의미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내재적 관점에 따른 감상으로 적절하다.
 - ② 시대적 현실과 작가의 삶의 경험을 중심으로 작품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외재적 관점에 해당한다.
 - ③ 작품을 당대 사회의 가치관과 시대적 인식의 반영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외재적 관점에 해당한다.
 - ④ 작가의 생애와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의미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외재적 관점에 해당한다.
 - ⑤ 독자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인식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작품 외적 요소에 의존한 감상이다.
- [오답 피하기]
- 내재적 관점은 작품 내부의 시어, 이미지, 표현 방식, 시상 전개 등 텍스트 자체의 구조와 의미 작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08

[정답] ③
(해설)

- ① 자연의 위치와 방향성이 화자의 인식 태도와 결합되어 의미를 형성한다고 본 해석으로 작품 내부 표현에 근거한 감상이다.
- ② 자연의 작용이 신체 내부로 스며드는 형상은 화자의 내면 정화 과정을 드러내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가)에서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화자의 정서와 인식을 매개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하므로 분위기 조성에 그친다고 보는 해석은 부적절하다.
- ④ 자연의 의인화를 통해 삶에 대한 인식 변화가 촉발된다는 이해는 작품의 표현 구조에 부합한다.
- ⑤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를 자연의 기능과 정서의 초점에서 구분한 감상으로 타당하다.

[오답 피하기]

자연이 단순 배경인지, 정서 형성의 매개인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인화'가 실제로 삶의 인식 변화와 연결되는지 표현 근거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09

[정답] ④
(해설)

- ㄱ: (가)는 자연물에 화자의 경험과 인식을 접목시켜 자연이 정서를 드러내는 매개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ㄴ: (가)는 갈등의 발생과 해결이 중심이 되는 구조로 보기 어렵고 정서의 고조를 통한 해결 과정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절하다.
- ㄷ: (나)는 바람·햇빛·실개천이 화자의 신체 내부에 작용하는 방식으로 제시되며 이는 내면 정화의 과정을 형상화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 ㄹ: (나)는 동일 종결 표현 반복을 통해 긴장을 조성하기보다 정서의 완화와 수용으로 나아가므로 부적절하다.
- ㅁ: 두 작품 모두 자연을 매개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가 나타나므로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갈등 구조의 존재 여부와 종결 표현의 기능을 실제 시의 정서 흐름과 연결하여 판단해야 한다.

10

[정답] ⑤
(해설)

- '채송화'는 무너지는 독에 홀로 선 화자에게 '생의 감각을 흔들어 주는' 존재로 제시된다. 즉, 절망적 상황 속에서 화자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회복·생명 환기의 계기로 기능한다.
- (나)의 '실개천' 또한 시름으로 고인 '간장 안 웅덩이'를 "말갱게 씻어 주며 흐르는" 존재로 제시되어, 화자의 내면을 정화하고 삶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드는 치유·회복의 동력으로 기능한다.

11

[정답] ⑤
(해설)

- 두 작품 모두 자연을 객관적 실체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정서와 인식을 드러내는 매개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관점과 부합하지 않는다.
- [오답 피하기]
- ① 시인의 생애적 경험을 전제로 한 해석이지만, 자연물을 통해 성찰과 의지를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보기]의 '내면 인식의 외적 투사'라는 설명과 부합한다.
- ② 촉각적 대상인 '바람'을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것은 감각의 전이에 해당하며, 이는 [보기]에서 말한 표현 방식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③ (가)는 자연을 통해 화자의 인식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자연이 의미 형성의 매개로 기능한다는 설명과 부합한다.
- ④ (나)는 자연의 작용이 화자의 신체 내부로 스며들어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구조를 보이므로, 자연이 내면 변화의 동인으로 제시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12

[정답] ②
(해설)

- ②는 화자가 '자신이 경험했던 바다의 속성'을 통해 이상적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작품에서 화자는 바다나 섬을 실제 경험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화자는 섬에 대한 상상과 추측을 통해 이상적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을 뿐이며, 직접 경험한 바다의 속성을 근거로 인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험에 근거한 인식으로 설명한 ②는 작품의 시적 상황과 어긋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갈매기의 유영을 통해 삶의 방향성이 전환되는 양상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이상적 공간을 구체적 현실로 제시하기보다 상상과 의지를 통해 지향하는 대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과거의 삶을 '초라한'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이전 삶에 대한 거리두기와 성찰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불꽃의 상승적 이미지를 통해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3

[정답] ③
(해설)

- ③은 (가)의 공간을 현실에서 실제로 경험한 공간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독자가 현재 삶에 만족하도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가)의 공간은 비경험적·상상적 공간으로서 현실을 넘어서는 삶의 가능성을 지향하게 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보기]의 효용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①, ②, ④, ⑤는 각각 (가)의 상상적 지향과 (나)의 경험적 성찰이 독자에게 인식의 확장과 자기 성찰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보기]의 논지에 부합한다.

14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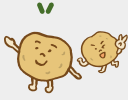
- 지나온 삶 속에서 쌓여 온 근심과 고통이 마음속 깊이 응어려져 있는 내면의 상처를 의미한다.
- (해설)
- '시름으로 고인 내 간장 안 웅덩이'는 실제 신체 기관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축적된 슬픔과 괴로움이 마음속에 고여 있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후 '실개천이 말갱게 씻어 주며 흐르고 있고'라는 표현과 연결되어,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이러한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정화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5

[정답] ① 안분지족(安分知足), 몰아일체(物我一體)
(해설)

- '안분지족(安分知足)'은 자신의 처지를 편안히 여기고 만족할 줄 아는 태도를 의미하므로,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와 부합한다.
- '몰아일체(物我一體)'는 자연(물)과 자아(아)가 하나로 어우러진 경지를 뜻하므로, 자연을 인간 중심으로 대상화하기보다 조화롭게 인식하는 태도를 잘 드러낸다.
- [오답 피하기]
- ② 견문발검(見蚊拔劍): 작은 일에 지나치게 크게 대응함을 뜻한다.
- ③ 풍월주인(風月主人): 자연을 벗 삼아 풍류를 즐기는 사람을 뜻한다.
- ③ 자연순응(自然順應): 자연의 이치에 따름을 뜻한다.
- ③ 망운지정(望雲之情): 타향에서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뜻한다.
- ④ 견문발검(見蚊拔劍):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행동함을 뜻한다.
- ④ 반포지효(反哺之孝): 자식이 자라서 부모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뜻한다.
- ⑤ 진충보국(盡忠報國):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함을 뜻한다.
- ⑤ 경이원지(敬而遠之): 겉으로는 공경하나 가까이하지 않음을 뜻한다.





16

[정답]

① 반성 → 위로 → 정화 → 의지

(해설)

(나)의 시적 화자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그동안 허술했던 목숨의 운영'이라는 표현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반성의 태도가 드러난다. 이어 '금싸라기 햇빛이 ... 덮어서 쓰다듬어 주고 있고'에서는 자연이 화자의 삶을 감싸 안으며 위로의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이후 '실개천이 말갭게 씻어 주며 흐르고 있고'라는 표현을 통해 내면의 시름이 씻겨 나가는 정화의 과정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이 ... 자산을 / 혼자 아껴서 곱게 가지리로다'에서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려는 의지적 태도가 드러난다. 따라서 정서와 태도의 흐름은 반성 → 위로 → 정화 → 의지의 순서로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17

[정답] ③

(해설)

(가)의 공간은 현실과 완전히 단절된 완결된 세계라기보다, 현재의 삶을 반성하는 과정 속에서 미래의 삶을 지향하게 하는 상상적 공간이다. 따라서 현재 삶과의 긴장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로 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은 (가)의 공간이 비경험적·지향적 공간이라는 점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②는 (나)가 경험적 자연 속에서 정서 변화가 이루어짐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

④는 자연이 내면 정서를 정화하는 매개로 기능함을 설명하고 있다.

⑤는 두 작품의 공간 형상화 방식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다.

18

[정답] ⑤

(해설)

⑤는 '금싸라기 햇빛'을 시인이 느낀 자연의 안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장치라고 해석하고 있어 부적절하다. 실제로 이 표현은 시인의 삶 속 반성과 치유, 삶의 긍정적 수용을 자연 이미지를 통해 표현한 것으로, 표현론적 관점에서 시인과 삶의 경험과 연결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는 모두 시인의 내적 경험과 정서를 작품의 표현과 연결하여 적절히 해석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발아래 깔리는' → 방향적 삶과 내면 불안 반영

② '서른 남은 해' → 삶 성찰과 미래 지향 반영

③ '간장 안 웅덩이' → 신체적 고통과 시름의 내면화

④ '실개천' → 자연 체험과 정서적 치유 경험 반영

⑤ '금싸라기 햇빛' → 시인의 감정 표현이지 독자 교훈용 장치가 아님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공유, 전송 또는 상업적 이용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137조에 따라 형사 처벌(벌금 또는 징역)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용을 원하시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